

# 폐결핵 환자의 심리적 간호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학교

정 은 순

<차 례>

- |                           |                    |
|---------------------------|--------------------|
| I. 서 론                    | D. 안정 가로중인 환자들의 사색 |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E. 사회인으로서의 고민      |
| III. 조사성적 및 토의            | IV. 총괄 및 결론        |
| A. 결핵환자들의 질병에 대한 반응       | V. 제 언             |
| B. 현재의 치료와 간호 및 의사에 대한 반응 | 영문초록               |
| C. 자기의 처지에 대한 반응          | 참고문헌               |

## I. 서 론

1881년 R. Koch에 의하여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발견된 이후 계속 오랜 기간을 통해 폐결핵의 치료 및 간호에 많은 연구가 거듭되고 있으나 아직 결핵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란 질환이 커다란 사회보건 분야의 큰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 더구나 결핵치료에 있어 약물요법 식이요법 등 여러가지가 구비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적절한 간호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환자 간호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관하여 알고 처리하는 것만이 간호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환자의 육체적 상태만 아는 것은 간호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것과 동시에 좋은 간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강<sup>5)</sup>은 효과적인 좋은 간호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그의 정신적 상태도 동시에 고려되어 질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今長<sup>4)</sup> 등의 발표에서도 환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이 간호하는 환자란 신체적 사회적 및 가정적 상태나 교육정도 그리고 경제적 및 종교적 배경이 다른 여러 환자가 임원하므로 같은 두 환자가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의 욕구는 누구하나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간호원은 환자 간호에 앞서 환자 개개인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측면(Aspect)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보고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sup>1)2)3)5)6)13)12)</sup>.

저자는 폐결핵 환자의 심리적 변화에 흥미를 갖고 본 연구를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어 다소 이 방언의 환자 간호에 도움이 될까 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1971년 2월 현재 경남 마산에 있는 국립 마산병원에서 임원가로중인 20세 이상

의 중증 폐결핵환자 274명을 대상으로 폐결핵 환자의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今長<sup>4)</sup> 등이 사용한 설문을 참고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남녀, 연령별 분포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연령별 분포

연령별	성 별 수	남		여		計	
		인 원 수	%	인 원 수	%	인 원 수	%
29 세 이 하		67	24.4	60	21.9	127	46.3
30 ~ 39 세		50	18.2	25	0.1	75	27.3
40 ~ 49 세		34	12.5	10	3.7	44	16.2
50 세 이 상		20	7.3	8	2.9	28	10.2
計		171	61.4	103	38.6	274	100

### Ⅲ. 조사성적 및 토의

#### A. 폐결핵환자들의 질병에 대한 반응

(1) 현재의 병의 증상을 솔직히 알고 싶은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고 싶다는 답변자가 남자 91.8%, 여자 82.5%로 남녀 다 같이 고율로 나타났으며 알고 싶지 않다는 답변자는 29세 이하의 남자에게서만 2%로 나타났으며 아무래도 좋다는 답변자는 남자 3.5%, 여자 2.9%로 나타나 이는 김<sup>6)</sup>의 폐결핵환자들이 자기의 증상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잘 알고 싶어한다는 말할것과 일치한다고 본다.

<표 2> 현재의 병의 증상을 솔직히 알고 싶은가

구 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알고 싶다		59 (86.4)	58 (97.0)	49 (98.0)	23 (92.0)	32 (94.0)	7 (70.0)	17 (85.0)	7 (88.0)	157 (91.8)	95 (82.5)
알고 싶지 않다		2 (4.0)	0	0	0	0	0	0	0	2 (1.2)	0
아무래도 좋다		4 (6.0)	1 (1.5)	0	2 (8.0)	0	0	2 (10.0)	0	6 (3.5)	3 (2.9)
무응답		2 (4.0)	1 (1.5)	1 (2.0)	0	2 (6.0)	3 (30.0)	1 (5.0)	1 (12.0)	6 (3.5)	5 (4.6)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2) 현재의 질병을 낫을 것으로 확신하는가.

이 질문에 나타난 해답을 <표 3>에서 보면 확신한다가 남자 84%, 여자 77.6%로 나타났으며, 단념하고 있다에 답변자는 남자 5.8%, 여자 11.6%로 나타나 남녀성격의 차를 나타내고 모르겠다에 답변자는 남자 7%, 여자 7.8%로서 많은 환자가 결핵이란 옛날과 달라서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안정만 취하면 반드시 완치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꽤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 현재의 질병을 나을 것으로 환신하는가.

구 분	나 이		20~29		30~39		40~49		50~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확신하고 있다			56 (83.6)	47 (78.2)	44 (88.0)	17 (69.0)	31 (91.0)	8 (80.0)	14 (70.0)	8 (100)	145 (84.0)	80 (77.6)
단념하고 있다			3 (4.5)	8 (13.3)	3 (6.0)	3 (11.0)	2 (7.0)	1 (10.0)	2 (10.0)	0	10 (5.8)	12 (11.6)
모르겠다			6 (8.9)	3 (5.0)	2 (4.0)	5 (20.0)	1 (2.0)	0	3 (15.0)	0	12 (7.0)	8 (7.8)
무 응 답			2 (3.0)	2 (3.5)	1 (2.0)	0	0	1 (10.0)	1 (5.0)	0	4 (3.2)	3 (3.0)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3) 현재의 질병치료에 대한 환자의 태도.

<표 4>에 나타난대로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긴다라고 답한 자가 남자 40.3%, 여자 27.1%로서 여자보다 남자가 13.2%나 더 많고 될 수 있는 한 힘닿는 데까지 치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 자는 남자 54.3%, 여자 68%로 남자보다 여자가 13.7%나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런 환자들의 생각에는 의사의 치료예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요법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치료를 받아 보았으면 하는 희망까지 합쳐져 있다고 생각되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현대의학의 힘을 더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현재의 질병치료에 대한 환자의 태도는

구 분	나 이		20~29		30~39		40~49		50~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의사에게 맡긴다			23 (34.0)	13 (21.6)	20 (40.0)	6 (24.0)	17 (52.3)	5 (50.0)	9 (45.0)	4 (50.0)	69 (40.3)	28 (27.1)
될 수 있는 대로 힘껏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40 (59.0)	45 (75.0)	29 (58.0)	19 (76.0)	15 (44.7)	3 (30.0)	9 (45.0)	3 (37.0)	93 (54.3)	70 (68.0)
아무태도 좋다			2 (3.5)	1 (1.7)	0	0	0	0	0	0	2 (1.2)	1 (1.1)
무 응 답			2 (3.5)	1 (1.7)	1 (2.0)	0	2 (3.0)	2 (20.0)	2 (10.0)	1 (13.0)	7 (4.2)	4 (3.8)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4)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 물음은 너무나 잔인한 물음같지만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하여 물었더니 <표 6>에 나타난 대로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한 자가 남자 73%, 여자 86.4%이며 그중 30~39세의 여자에게서는 96%로 제일 고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 여자 30대 나이에 투병생활이란 죽음과 같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며 더욱이 여자의 연약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남자는 23.4%, 여자 10.7%로 나타나 역시 여자들이 자살충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학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구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있	다	49 (73.0)	53 (87.0)	37 (74.0)	24 (96.0)	24 (70.6)	6 (60.0)	15 (75.0)	6 (75.0)	125 (73.0)	89 (86.4)
없	다	17 (25.0)	5 (8.0)	13 (26.0)	1 (4.0)	6 (17)	3 (30.0)	4 (20.0)	2 (25.0)	40 (23.4)	11 (10.7)
무	응	1 (2.0)	2 (5.0)	0	0	4 (12.4)	1 (10.0)	1 (5.0)	0	6 (3.6)	3 (2.7)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B. 현재의 치료와 간호 및 의사에 대한 반응.

(1) 현재의 치료에 만족하는가<표 6>

만족하고 있다에 답한 자가 남자 34%, 여자 46.6%이고 불만이 다라고 답한 자는 남자 44.4% 여자 43%로서 남자 환자들에게서 더 많은 불만이 있는것 같고 더구나 39세 이하의 남자에게서 52%나 나타난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아무쪽도 아니다가 남자 20%, 여자 14.5%로 나타났다.

<표 6> 현재의 치료에 만족하고 있는가

구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만족하고 있다		13 (18.0)	28 (46.1)	14 (28.0)	12 (48.0)	20 (59.0)	6 (60.0)	11 (55.0)	2 (25.0)	58 (34.0)	48 (46.6)
불만이 다		36 (53.0)	25 (41.6)	26 (52.0)	7 (28.0)	12 (34.0)	1 (10.0)	12 (60.0)	3 (37.5)	76 (44.4)	36 (34.0)
아무쪽도 아니다		16 (23.0)	6 (10.0)	10 (20.0)	6 (24.0)	2 (7.0)	2 (20.0)	6 (30.0)	1 (12.5)	34 (20.0)	15 (14.5)
무	응	2 (6.0)	1 (2.3)	0	0	0	1 (10.0)	1 (5.0)	2 (25.0)	3 (1.6)	4 (4.9)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2) 현재의 간호에 만족하고 있는가<표 7>

만족하고 있다에는 남자 30.4%, 여자 43.7%이며, 불만이 다에 남자 41.5%, 여자 33%로서

<표 7> 현재의 간호에 만족하고 있는가

구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만족하고 있다		15 (20.0)	27 (45.0)	17 (34.0)	12 (48.0)	12 (34.0)	4 (40.0)	8 (40.0)	2 (25.0)	52 (30.4)	45 (43.7)
불만이 다		29 (43.0)	31 (51.0)	27 (54.0)	7 (28.0)	11 (31.0)	3 (30.0)	4 (20.0)	4 (50.0)	71 (44.5)	34 (33.0)
아무쪽도 아니다		21 (31.0)	1 (2.0)	6 (12.0)	6 (24.0)	7 (19.0)	2 (20.0)	7 (35.0)	2 (25.0)	41 (24.0)	21 (20.4)
무	응	2 (6.0)	1 (2.0)	0	0	4 (16.0)	1 (10.0)	1 (5.0)	0	7 (4.1)	3 (2.9)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대체로 남자 환자들이 현재의 간호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으며 아무쪽도 아니다가 남자 24%, 여자 20.4%로 나타남을 미루어 보아 현재까지의 간호가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간호원의 수적인 부족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정신적인 간호를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많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3) 간호원에 대한 요구<표 8>.

환자심리를 이해하라는 답에는 남자 60.6%, 여자 58.2%로 수위를 차지하고 불쾌한 태도를 하지말라에는 남자 17%, 여자 20.6%로 다음을 차지하고, 현재 그대로가 좋다면에는 남자 11.7% 여자 9.7%로 나타났으며, 좋고 나쁜태도를 명확히 하라에는 남자 8.2%, 여자 6.8%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간호원은 환자간호에 앞서 환자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8> 간호원에 대한 요구

구 분	나 이		20~29		30~39		40~49		50~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환자 심리를 이해하라			38 (56.7)	36 (60.0)	35 (70.0)	15 (60.0)	22 (64.0)	5 (50.0)	9 (45.0)	4 (50.0)	104 (60.6)	60 (58.2)
현재로 그대로가 좋다			5 (7.5)	6 (10.0)	6 (12.0)	2 (8.0)	4 (12.0)	1 (10.0)	5 (25.0)	1 (12.5)	20 (11.7)	10 (9.7)
불쾌한 태도를 하지마라			17 (25.4)	12 (20.0)	3 (6.0)	6 (24.0)	4 (12.0)	1 (10.0)	5 (25.0)	2 (25.0)	29 (17.0)	21 (20.6)
좋고 나쁜 태도를 명확히			5 (7.5)	5 (8.3)	5 (10.0)	2 (8.0)	4 (12.0)	0	0	0	14 (8.2)	7 (6.8)
무 응 답			2 (2.9)	1 (1.7)	1 (2.0)	0	0	3 (30.0)	1 (5.0)	1 (12.5)	4 (2.5)	5 (4.7)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4) 의사에 대한 요구<표 9>

수시로 병의 경과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남자 45%, 여자 3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자기의 상태를 알리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절하게 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것은 남자 43.5%, 여자 48.5%로 여자에게 정서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표 9> 의사에 대한 요구

구 분	나 이		20~29		30~39		40~49		50~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수시로 병의 경과를 설명하라			24 (35.8)	20 (33.3)	25 (50.0)	9 (31.0)	16 (47.0)	4 (40.0)	12 (60.0)	2 (25.0)	77 (45.0)	35 (34.0)
친절하게 담화할 수 있는 기회있도록			33 (49.0)	31 (51.7)	22 (44.0)	12 (48.0)	12 (35.2)	3 (30.0)	7 (35.0)	4 (50.0)	74 (43.5)	50 (48.5)
치료 계획을 알려달라			10 (15.2)	3 (5.0)	2 (4.0)	4 (21.0)	3 (8.8)	1 (10.0)	1 (5.0)	1 (12.5)	16 (9.3)	9 (8.7)
의사를 때때로 교차시켜라			0	1 (2.7)	1 (2.0)	0	1 (3.0)	1 (10.0)	0	1 (12.5)	1 (1.1)	2 (2.9)
무 응 답			0	5 (8.3)	0	0	2 (6.0)	1 (10.0)	0	0	2 (1.1)	6 (5.9)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치료계획을 알려 달라에는 남자가 9.3%, 여자가 8.7%로 나타났고 의사를 때때로 교차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남자 1.1%, 여자 2.9%로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병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병의 정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격리 요양중에 있는 환자들의 외로움도 가히 추측할 수 있다.

C.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1)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표 10>

감사하고 있다가 남자 80%, 여자 90.2%로 대부분이 감사하고 있으며 다음에 당연한 일이라서 별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남자는 남자 10.6%, 여자 3.8%로 나타나고 다음 그중 20세의 남녀에게서 응답수가 많음을 볼 때 젊은세대의 반항적인 면을 엿볼 수 있고, 그다음 감사하지 않는다가 남자 8%, 여자 3.8%로서 이것은 20~39세의 남녀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표 10>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구분	나이		20~29		30~39		40~49		50~		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감사하고 있다			48 (71.6)	54 (90.0)	42 (84.0)	23 (81.2)	28 (82.5)	9 (90.0)	18 (90.0)	7 (88.0)	136 (80.0)	93 (90.2)
감사하지 않는다			4 (6.0)	2 (3.3)	7 (14.0)	2 (18.8)	2 (5.8)	0	0	0	13 (8.0)	4 (3.8)
당연한 일이라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			15 (23.4)	4 (6.7)	1 (2.0)	0	0	0	2 (10.0)	0	18 (10.6)	4 (3.8)
무응답			0	0	0	0	4 (1.7)	1 (10.0)	0	1 (12.0)	4 (1.4)	2 (2.2)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2) 자기의 요양생활을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표 11>

요양의 지식과 요령을 채득한대로 요양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란 물음인데 올바르게 다라고 답한 자는 남자 74.2%, 여자 72.8%인데 그중 30세의 남자가 88%, 40세의 남자가 88.2%로 가장 많고 여자는 20~29세가 80%로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올바르게 않다고 답한자는 남자가 25%, 여자 24.2%인데 그중 20세의 남자에게서 59%로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여기서도 젊은세대의 반항 의식과 자기의 병이 하루이틀에 낫지 않는다는 것을 체

<표 11> 자기의 치료생활을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구분	나이		20~29		30~39		40~49		50~		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올바르다			40 (59.0)	48 (80.0)	44 (88.0)	16 (64.0)	30 (88.2)	6 (60.0)	13 (65.0)	5 (62.5)	127 (74.2)	75 (72.8)
올바르지 않다			27 (41.0)	12 (20.0)	5 (10.0)	9 (36.0)	4 (11.8)	2 (20.0)	7 (35.0)	2 (25.0)	43 (25.0)	25 (24.2)
무응답			0	0	1 (2.0)	0	0	2 (20.0)	0	1 (12.5)	1 (0.8)	3 (3.0)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험으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지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D. 안정자로 중인 환자들의 사색.

(1) 자기의 병과 생활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이 있는가<표 12>

있다고 답한 자가 남자 80.2%, 여자 96%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요양중인 환자는 육체적 고통 이외에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마련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없다고 답한 자는 남자 9.9%, 여자 1% 이고 그중에서 50세의 남자에게서 20%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환혼기에 들어선 남자들이 생활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2> 자기의 병과 생활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이 있는가.

구 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있 다	61 (91.0)	59 (98.0)	47 (94.0)	25 (100)	26 (76.4)	9 (90.0)	15 (75.0)	6 (75.0)	149 (80.2)
없 다	4 (6.0)	0	0	0	3 (8.9)	0	4 (20.0)	1 (12.5)	11 (9.9)	1 (1.0)	
무 응 답	2 (3.0)	1 (2.0)	3 (6.0)	0	5 (14.7)	1 (10.0)	1 (5.0)	1 (12.5)	11 (9.9)	3 (3.0)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2)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구원을 구하는 일이 있는가<표 13>.

있다고 답한 자가 남자 54.7%, 여자 73.6%로 여자가 훨씬 많으며 그중 29세 이하와 40세 이상의 여자에게서는 75%로 가장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심이 여자가 더 강함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없다고 답한 자가 남자 40.3%, 여자 25.2%로 자의식은 남자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13>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구원을 구하는 일이 있는가.

구 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있 다	43 (64.0)	45 (74.9)	26 (52.0)	17 (68.0)	15 (46.9)	8 (80.0)	10 (50.0)	6 (75.0)	94 (54.7)
없 다	21 (33.0)	14 (23.3)	24 (48.0)	8 (32.0)	15 (44.0)	2 (20.0)	9 (45.0)	2 (25.0)	69 (40.3)	26 (25.2)	
무 응 답	3 (3.0)	1 (2.8)	0	0	4 (9.1)	0	1 (5.0)	0	81 (5.0)	1 (1.2)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17 (100)	103 (100)	

E. 사회인으로서의 고민

(1) 현재 가장 염려되는 것은<표 14>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이 수위로서 남자 60.8%, 여자 60.2%로 나타나며 20세보다 30세, 40세, 50세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 고율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며 주부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고민과 경제적 타격, 실제적인 가정의 타탄 등이 그들의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다음이 직업으로서 남자 26.3%, 여자

14.6%이며, 그중 20세의 남자가 44.7%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때 장기간의 요양생활이 사회에의 진출에 장벽이 되어 자신의 퇴보를 염려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그 다음이 결혼과 배우자 순위로 나타나 있다.

<표 14> 현재 가장 염려되는 것은

구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직업	업	30 (44.7)	12 (20.0)	13 (26.0)	2 (8.0)	2 (6.0)	1 (10.0)	0	0	45 (26.3)	15 (14.6)
결혼	혼	11 (16.5)	13 (21.5)	2 (4.0)	0	0	0	0	0	13 (7.0)	13 (12.6)
가족	족	23 (34.2)	28 (47.0)	31 (60.2)	19 (86.0)	32 (94.0)	8 (80.0)	18 (90.0)	7 (88.0)	104 (60.8)	62 (60.2)
배우자	자	2 (1.6)	6 (10.0)	4 (9.8)	4 (6.0)	0	0	1 (5.0)	0	6 (3.5)	10 (9.7)
무응답	답	1 (3.0)	1 (1.5)	0	0	0	1 (10.0)	1 (5.0)	1 (12.0)	3 (2.4)	3 (2.9)
계		67 (100)	60 (100)	50 (100)	25 (2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2) 병상에서 제일 위로나 힘이 되는 것은<표 15>

제일 높은 율이 가족으로서 남자 36.8%, 여자 42.7%이고 다음이 종교로서 남자 22.8%, 여자 21.3%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남자는 배우자와 친구, 여자는 자녀의 순위다. 여기에서 가족의 보호 속에서 요양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평소에 종교를 가진자라면 더욱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게 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계기에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을 갖도록 이끌어 줄 수도 있다.

<표 15> 병상에서 제일 위로와 힘위와 힘이 되는 것은

구분	나이 성별	20~29		30~39		40~49		5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종교	교	16 (23.8)	12 (20.0)	15 (30.0)	7 (28.0)	5 (14.6)	2 (20.0)	3 (15.0)	1 (12.5)	39 (22.8)	22 (21.3)
가족	족	21 (31.3)	31 (51.7)	16 (32.0)	9 (36.0)	16 (47.0)	3 (30.0)	10 (50.0)	1 (12.5)	63 (36.8)	44 (42.7)
배우자	자	13 (19.5)	8 (13.0)	4 (8.0)	0	3 (8.9)	1 (10.0)	0	0	20 (11.8)	9 (8.7)
자녀	녀	0 (6.0)	0 (20.0)	3 (6.0)	5 (20.0)	6 (17.0)	3 (30.5)	4 (20.6)	5 (62.5)	13 (7.6)	13 (12.6)
친구	구	7 (10.4)	3 (8.0)	5 (10.0)	1 (4.0)	0	0	0	0	12 (7.0)	4 (3.9)
기타	타	8 (12.9)	5 (8.3)	7 (14.0)	3 (12.0)	0	0	2 (10.0)	0	17 (10.0)	8 (7.7)
무응답	답	2 (2.1)	1 (2.0)	0	0	4 (11.5)	1 (10.0)	1 (5.0)	1 (12.5)	7 (4.0)	3 (3.1)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3) 간호원의 가정방문에 대해서<표 16>

원하고 있다가 여자 68%로 가장 많고 원하지 않는다는 48.5%로 남자가 수위이다. 방문할



까봐 겁이난다에 있어서는 남자가 3%, 여자가 6.8%로서 그중 39세이하의 남녀에게서 많이 나타남을 볼 때 결핵이란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기의 병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보여준다.

<표 16> 간호원의 가정방문에 대해서

구분	나이		20~29		30~39		40~49		50~		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원하고 있다			37 (55.4)	42 (70.0)	20 (40.0)	16 (64.0)	10 (29.0)	6 (60.0)	10 (50.0)	6 (75.0)	77 (45.0)	70 (68.0)
원하지 않는다			26 (38.0)	14 (23.3)	27 (54.0)	6 (24.0)	20 (60.0)	3 (30.0)	10 (50.0)	1 (12.5)	83 (48.5)	24 (23.3)
방문할까봐 겁이 난다.			2 (3.3)	4 (6.7)	3 (6.0)	3 (12.0)	0	0	0	0	5 (3.0)	7 (6.8)
무응답			2 (3.3)	0	0	0	4 (11.0)	1 (10.0)	0	1 (12.5)	6 (3.5)	2 (1.9)
계			67 (100)	60 (100)	50 (100)	25 (100)	34 (100)	10 (100)	20 (100)	8 (100)	171 (100)	103 (100)

#### IV. 총괄 및 결론

어떤 질환의 환자일지라도 환자는 정신적으로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하지만 더욱 결핵이란 만성 전염병으로 장기간 가료를 해야 하므로 환자들의 정신적인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신경과의 오<sup>8)</sup> 등의 보고에 의하면 폐결핵환자 CMI(Cornell Medical Index)의 평균 평점이 비교군보다 월등히 높음을 증명하였고 또 유<sup>9-11)</sup>의 보고서에서 Rorschach test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 폐결핵 환자의 과반수 이상에서 Introvert tendency가 현저하였고, Hypochondrical tendency가 뚜렷하게 보이고 또한 지나치게 Protective하고 depressive tendency가 심하고 대인 관계의 곤란을 느끼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폐결핵 환자의 치료 영역에서 정서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점과 일본인에 대한 今長<sup>4)</sup> 등의 발표에서도 폐결핵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임상 심리를 알고 환자를 대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김<sup>6)</sup>도 결핵환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두고 간호에 임하기를 주장하고 있음은 모두 폐결핵 환자에게서 특이한 정신반응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저자는 1971년 2월 현재 국립 마산병원에서 요양가료중인 폐결핵 환자 274명을 대상으로 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설문에 의해 조사하였던바 다음과 같이 심리상태를 파악 요약할 수 있었다.

1. 결핵환자들이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반응은 남녀 성별에 의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자는 과학적이고 이지적인 반면에 조급성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비과학적이고 체념적인 반면 연약을 말해주고 있으며,
2. 현재의 치료와 담당의사, 간호원에 대한 반응은 남자는 불만과 요구가 여자보다 많고, 그중 젊은세대에서 더욱 불만, 요구가 많음은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세대라는 점에서 이해가 될수 있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환경에 쉽게 순응하고 협조적임을 보여 주었다.
3. 현재의 자기 처지에 대한 반응중 입원가료에 만족한 자와 요양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자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고, 환경에 쉽게 순응하는 반면 젊은층에서는 반항적이며 비협조적이었고 병에서 도피하려는 경향과 자포자기에 빠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 안정 가료중인 환자들은 자기 생활에 대해 남녀가 많이 다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노년층보다 젊은층에서 생각하는 점이 많은 것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의 도전에 대한 불안에 기인함이 아닌가 한다.

5. 사회인으로서의 가장 염려되는 점 및 요양중 가장 위로를 받는 대상은 남녀가 다같이 자기 가족으로서, 혈연관계가 무엇보다 정신적 안정에 크게 작용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간호원의 가정방문은 별로 찬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V. 제 언

현재까지의 간호가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호원의 수적인 부족과 시설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신체적 증상에 따른 치료에 국한되어 충분한 정신적 간호를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는 환자의 심리적 변화를 고려하여 정신적 안위에 주력함이 좋은 간호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논문작성을 위하여 지도하여 주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신영기 부교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 Abstract

#### Studies on the Psychological Nursing care of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Eun Soon Cheung B.S.

School of Nursing, Medical College, Pusan National University.

Auther Studied on a few aspects of clinical psychology of 274 patients with chronic pulmonary tuberculosis by simple questionnaire, who had been admitted in national Masen for a long time Feb. 1971, Hospital.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errized as follows:

1. The attitude and state of understanding to their diseases were somewhat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That is, rather scientific and intellectual in males but rather unscientific and desparing in females.
2. The attitude to their doctors and nurses were rather more discontent in males and younger age group.
3. Attitude to hospital life what was some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that is, more agreeable and obedient to their circumstances in females and older age group than in males and younger age group.
4. The most anxious problem and the persons who gave best consolation during hospital life were family members in their home.
5. The home visting of the nurses seemed under whole net welcomed.

### REFERENCES

- 1) Alice L. Price: The Art Science and Spirt of Nursing, 3rd ed, Saunders Igakushoin, p. 728
- 2) Fuerst and Wolff: Fundamentals of Nursing, 3rd ed, Lippincott, p. 135
- 3) Montag and Swenson: Fundamentals in Nursing care, 3rd ed, Saunders, p. 45.

- 4) 今長久, 田澤フサ, 松原房子, 石塚芳子: 慢性重症肺結核患者の臨床心理について, 日本看護學雜誌, 第25卷, 第12號, 1961年.
- 5) 강제옥: 효율적인 환자-간호원의 교호를 위한 심리학적 고찰, 대한간호지. Vol. 3, No. 13, p.12
- 6) 김주희: 정신적 면에서 본 폐결핵 환자와 그 간호, 한간호지, Vol. 1, No. 8, p. 44
- 7) 김기호: 오늘의 결핵치료, 최신허간호지의 경향

- 대한결핵협회, 보건세계.
- 8) 오석환 · 박조열 · 이재민 · 박희주 · 황선무 : 입원된 폐결핵 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고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제 9권, 1호, 1970.
- 9) 유방현 : Psychosomatic Studies on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 부산대학교 논문집, 1961년, p. 395
- 10) 유방현 : Studies of Rorschach Responses of Tuberculosis Patients in Korea, 의창 제 1호, 부산대학교 의대 학생회, p. 22
- 11) 유방현 : 폐결핵증의 Rorschach test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논문집, 1966년, p. 255.
- 12) 홍근표 : 기본간호학, 수문사, p.37.
- 13) 홍옥순 : 간호학 학리와 실제, 내한간호, p.68.